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



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집 막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. 그날도 기차 시간에 대느라 새벽부터 일어난 딸은 뒤져봐야 헐은 옷들뿐인 옷장에서 아껴 두었던 치마를 찾아 입었습니다.

"좋아, 이만하면..."

그런데 스타킹이 문제였습니다. 몇 개 되지도 않는 스타킹이 하나같이 울이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. 벗어 놓을 때까지만 해도 말짱했었는데 말입니다. 딸은 스타킹을 들고 다짜고짜 엄마를 다그쳤습니다.

"엄마, 이거 다 왜 이래?"

"아이구 저런, 내가 빨다가 그랬나 보다. 이놈의 손이 갈퀴 같아서 원...."

이를 뉘쩌냐"

딸은 미안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엄마 앞에 스타킹 뭉치를 팽개쳤습니다.

"엄마, 다시는 내 스타킹에 손대지 마. 이제부터 내가 빨 테니까"

엄마는 그 억지투정을 말없이 받아 넘겼지만 그 후론 딸의 스타킹에 정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.

그해 여름 방학,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.

"네? 우리 엄마 지문이 다 닳았다구요?"

엄마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문이 닳아서 지장을 찍을 수 없으니 제발 며칠만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.

딸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.

그제서야 딸은 엄마가 뻥 스타킹들이 왜 하나같이 울이 나가게 되었는지 알았습니다. 자기를 위해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기는 커녕 가슴에 못 박는 말만 한 것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발으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.

그날 한점 없는 뉘약별, 기억자로 굵은 등..평생을 그렇게 논 매고 밭 매며 역새 풀처럼, 질경이처럼 살아 온 엄마였습니다.

"엄마..흑흑흑 " "아이구, 우리 막내가 웬일로 발뉘 다 오고"

영문도 모른 채 엄마는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.

엄마의 손은 비록 땀별에 그을리고 패이고 흙 묻은 손이지만

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



◀그면 그랬지▶ 뼈라

웬지 촌스럽고 칙칙한 색깔과 문구로 음산한 분위기를 주었던 뼈라. 그래도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떨어질 땐 가슴 설레며 뛰어가 한 장이라도 더 주었습니다. 파출소에 갖다주면 연필 한 자루를 주기도 했었죠. 작은 종이 한 장에도 우리 민족의 아픔이 그려져 있던 그 시절,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.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'2003년 교회생활'건강하기정건강한교회'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 5권 36 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3년 9월7일
☎520-9464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		

주여, 때때로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.



내게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.

주여,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.

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.

주여, 당신은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.

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

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.

당신은 내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.

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.

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.

당신은 내게 따뜻한 가정을 주셨습니다.

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.

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.

주여, 당신은 내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.

그리고 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.

"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"

오, 주님,

이젠 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당신이 주신 축복을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

엄마가 딸에게
어디를 갈 때면 네 생각보다
30분 먼저 출발하라
늦어서 허둥대는 모습보다
조금 여유를 갖는게 우아하다

아버지가 아들에게
1시간의 로마 관광을 위해
열흘동안
정보를 수집하라
외국여행은
결코 사치가 아니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"Calvary"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7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16 (시편 63편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어린이시간 Sunday School	- 성찬식 -	주일학교
찬송 Hymn	463장	다 같이
기도 Prayer		노은숙 권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고린도전서 8:1-3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심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믿음시리즈(9) "많이 아는 것보다 더한 믿음"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411장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 (1절:우리는 2절:다같이)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9월의 예배위원, 교회력◆

일자	주일기도	헌금위원	가족찬송	Tea Time
7	노은숙	임숙경	우리는..	최현철, 경덕현
14	박일영	정성호	교역자 가족	고성일, 권용일

7	성찬주일	결식자봉사(6) 추석(11) 구역예배(12)
14	자원봉사자주일 (식사친교)	믿음의 어머니 기도회(15) 남선교회 Golf 친교(20)
21		학생, 청년부 스포츠 Day(21). 수요특별찬양예배(25일, 살롬중앙단)
28	이삭줍기 주일	

'2003년 교회표어
"건강한 가정, 건강한교회"(마 18:4)
부모의 기도받는 자녀
남의 형편 해아리는 신앙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
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6시



*오늘은 Father's Day 그리고 주중에는 추석도 있습니다.
그래서 뭔가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먼 땅.
오늘은 전화라도 드려야겠습니다
1. 교우소식 <입원> 임숙경 집사 모친. North shore H. 4층 F
*<이사>유종욱 집사. 김선자 성도. ☎ 277-6211.

9 Franshell Cre. Dannemora

- *<등록> 갈보리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
권정호, 강현정 성도, 주영, 주성 ☎ 834-6990. 5/17 Harbour view Rd., Te Atatu Peninsula
- 2. 정기구역예배. 금요일(12). 구역식구를 위한 기도와 유쾌한 친교의 자리입니다
- 3. 결식자 봉사. 13일(토요일). 오전 10시-오후 1시. <담당> 결식자봉사부
*잊고 지내다 보면 2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봉사가 눈 깜짝 할 새 돌아옵니다.
봉사란 이렇게 하고 나선 잊어 버려야 하는 것을...
- 4. 다음주일은 자원봉사자 주일(예고)
할 만큼의 분량대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우리 교회내 여러 자원 봉사자들의
수고를 위로, 자축하는 주일로 지킵니다.
*BBQ를 위해 BBQ용 불판을 갖고 계신 분은 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(문의: 박일영 집사와 안수집사. 불판 10개 필요. 현재 7개 확보)
- 5. 이번 주간엔 고국의 추석이 있습니다.(11일)
속살 같은 고향 동무들과의 추억의 되돌림, 늙고 연약하셔도 기대고싶은 부모님
의 가슴이 살아 있는 고향의 추석....
- 6. '아동부 달란트 잔치' 위한 Donation. 가정에 가지고 계신 물건중 어린이
들에게 선물 할 만한 물품의 Donation을 바랍니다(문의: 윤한나 집사)
- 7. 남선교회 Golf 친교(예고) <일시> 9월 20일(토) 오전 11시

아버지의 말 (Father's day에)

- 김성국 -

그렇게 당당하던 어깨인데
이젠 걸친 석양 그림자도 무겁다
봄에서 겨울까지
아들 하나 기다리다
눈물 한번 흘리고는
"먼데 왜 왔니"
떠 나는 날엔
주름 패인 손 앞위로 흔들며
"어여 가, 어여 가
내 걱정 말고"
나는
그 말이 가장 무섭다

당당해 보이는 어깨 뒤로 책임
감이란 무게를 감추고 살아오
신 이 땅의 아버지들.
이젠 젊었을 때의 그 호기보
다는 팔장을 끼워주는 딸과,
아버지의 발보다 더 커버린 아
들의 신발을 신고 걸어 보고픈
로맨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
아버지들만의 날!
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